



‘슬퍼매치’... 슈퍼매치 명성 회복할까

K리그1 6R 수원 삼성·FC서울 리그 통산 93번째 격돌 92차례 대결 35승 24무 33패로 FC서울 근소한 우위

지난해 나란히 하위권에서 허덕이며 ‘슬퍼매치’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인 수원 삼성과 FC서울이 2021시즌 초반 상승세를 탄 가운데 맞대결에 나선다.

수원과 서울은 21일 오후 4시 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1 6라운드에서 격돌한다.

이번 시즌 처음이자, 리그 통산 93번째 슈퍼매치다. 지난 92차례 맞대결에선 서울이 35승 24무 33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K리그 최대 라이벌전으로 꼽히는 슈퍼매치는 지난해 두 팀의 부진 속에 그 이름이 어색해질 지경이었다.

수원은 리그 8위, 서울은 9위에 머물러 파이널 라운드 때 처음으로 B그룹에서 슈퍼매치가 열리기까지 했다.

두 팀 모두 시즌 도중 감독이 물러났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서울은 7월 말 최용수 전 감독이 물러난 이후 감독대행 체제마저 흔들려 9월 13일과 26일 벌어진 슈퍼매치 때 각기 다른 감독대행이 지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여러모로 떨어진 위상에 팬들 사이에선 슈퍼매치가 아니라 ‘슬퍼매치’로 불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다. 5경기만

치렀지만, 수원은 3위(승점 11), 서울은 4위(승점 9)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지휘봉을 잡은 ‘레전드’ 박건하 감독 체제가 안정하며 연말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가능성을 보인 수원은 리그 개막 5경기 무패를 내달렸다.

5경기 1실점으로 안정된 수비력을 보이고, 17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5라운드에선김건희, 정상빈, 이기제의 릴레이 골로 시즌 첫 대량 득점에 성공하며 공격력도 올라오는 양상이다.

최근 서울과의 대결인 지난해 9월 26일 3-1로 이겨 5년 5개월 만에 슈퍼매치 승리를 챙긴 것도 이번 대결을 앞둔 자신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박진섭 감독 체제로 새 출발한 서울도 최근 2연승으로 흐름이 좋다.

특히 ‘킵틴’ 기성용이 연승을 하

는 동안 잇달아 결승 골을 터뜨리며 5경기 2골 1도움을 올리는 등 활약 중이다.

팀 내 최대 득점에 해당하는 3골을 넣어 공격의 핵으로 떠오른 나상호도 서울 선수로서 처음 나설 슈퍼매치를 앞두고 발 끝을 달구고 있다.

18일 각 클럽 하우스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원의 박건하 감독은 “슈퍼매치는 항상 양 팀에 의미 있는 경기다. 올해 첫 슈퍼매치를 통해서 치르는만큼 특히 중요하다”면서 “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의 박진섭 감독은 “저에게 서울 감독으로서 처음 치르는 슈퍼매치다. 승부니까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슈퍼매치답게 좋은 경기력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나 잡아 봐라 1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스템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UCL 16강 2차전 첼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볼 경합을 하고 있다. 이날 첼시는 2-0으로 승리하며 1, 2차전 합계 3-0으로 8강에 올랐다. 한편 이날 바이에른 뮌헨도 라치오에게 2-1로 이기며 합산 스코어 6-2로 UCL 8강 진출 기록을 19차례로 늘렸다. 연합뉴스



힘차게 타격하는 SSG 랜더스의 추신수.

연합뉴스

프로야구 시범경기 마지막 모의고사

20일 개막... SSG 추신수 출격

야구 시즌의 도래를 알리는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20일 전국 5개 구장에서 막을 올린다.

시범경기는 정규리그 직전 10개 구단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답을 찾아가는 마지막 실전 무대다. 출범 40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올해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선 불거리가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메이저리그 생활을 접고 SSG 랜더스 입단과 함께 일약 한국프로야구 최고 연봉(27억원) 선수가 된 추신수(39)는 드디어 경기에 출격한다.

지난해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챔피언 NC 다이노스는 SSG를 창원 안방으로 불러들여 20~21일 이틀간 대결한다. 나머지 개막 대진은 kt wiz-두산 베어스(서울 잠실구장), 키움 히어로즈-롯데 자이언츠(부산 사직구장), KIA 타이거즈-삼성라이온즈(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LG 트윈스-한화 이글스(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편성됐다.

2021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새로 잡은 김원형 SSG, 류지현 LG, 홍원기 키움,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감독은 남다른 각오로 출발을 기다린다.

팀당 10경기씩 벌이는 시범경기는 30일 끝난다. 정규리그는 4월 3일 개막 광파를 올린다. 연합뉴스

여자프로배구 화려한 입담 대결

포스트시즌 미디어데이 GS·IBK·흥국 우승 출사표

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 GS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은 플레이오프(PO·3전 2승제)에서 격돌하는 두 팀이 3차전까지 매경기 5세트씩 치러 총 15세트에 약간 못 미치는 14세트의 혈투를 벌이기를 대놓고 바랐다.

그러자 박미희 흥국생명, 김우재 IBK기업은행 감독이 당치 않다는 듯 “2차전에 끝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대한 일찍 끝내 GS칼텍스와 우승 컵을 놓고 제대로 붙겠다고 맞섰다.

세 감독은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포스트시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입담을 뽐내며 저마다 우승 출사표를 올렸다.

먼저 20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정규리그 3위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PO 1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2위 흥국생명의 박미희 감독은 “아쉬움이 많은 정규리그였지만, 남은 경기 준비 잘해서 내용과 결과 모두 좋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기는 곧 기회다”란 말로 선수들의 투지를 자극했다.

김우재 감독은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기쁘고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으므로 놓치지 않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학창 시절 폭행 사건으로 팀을 이탈한 이재영을 대신할 김미연을 키 플레이어로 꼽고 PO에선 기업은행의 주포 안나 라자레바를 제외한 국내 선수 중 표승주를 집중해 공략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김 감독은 날개 공격수인 김주향과 표승주의 맹활약을 기대하면서 김연경을 뺀 흥국생명 선수 중 브루나 모라이스, 김미연을 경계한다고 답했다.

PO 승자와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에서 맞붙는 차상현 감독은 “트레블(3관왕)을 달성하면 영광스러운 것”이라며 “함께 하는 선수들도 대기록을 세울 텐데 얼마만큼 준비한 대로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GS칼텍스는 2020-2021 정규시즌 직전에 열린 프로배구컵대회, 정규리그를 거푸 제패했다.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샴페인을 터뜨리면 여자부 최초로 3관왕의 위업을 이룬다.

차 감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구단의 많은 보너스가 필요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 뒤 “남은 기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차 감독은 매라타 러츠, 이소영, 강소희 삼각 편대의 장점을 극대화 하도록 세트 안배진과 이원경이 중심을 잘 잡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플레이어 제2의 송민규·이동륜은?

K리그 주니어 8개월 대장정

프로축구 K리그 산하 유소년 클럽이 참가하는 주말 리그 ‘2021 K리그 주니어’가 20일 막을 올리고 8개월 대장정에 들어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K리그 주니어는 K리그 22개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이 모두 참가하는 연중 리그로, 2008년 첫 대회 이후 올해로 14 회째를 맞는다.

2020년 K리그1(1부) 영플레이어 수상자인 송민규(포항)와 K리그2(2부) 영플레이어 수상자인 이동륜(제주)도 K리그 주니어 출신이다. K리그 팀별 유소년 출신 선수들의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일 연맹에 따르면 올해 K리그 주니어는 18세 이하(U-18), 15세 이하(U-15) 대회 모두 A조와 B조 11개 팀씩으로 나눠 2라운드, 팀당 20경기씩 치른다.

두 대회 모두 저학년 리그(U-17, U-14)를 별도로 운영해 1, 2학년 선

수들도 충분한 경기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K리그 주니어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프로와 동일한 위치정보시스템(GPS) 장비를 착용해 경기 및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EPTS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고, 경기 영상분석 자료를 받는다.

U-18 대회는 전·후기 리그로 나눠 진행된다.

전기리그는 지역 기준으로 A조와 B조를 구분하고, 후기리그는 전기리그 성적을 기준으로 A조와 B조를 나눈다.

이는 실력이 비슷한 팀끼리 경기를 치러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U-15 대회는 지역 기준으로 A, B조를 나눠 연중 조별리그로 치른다.

연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경기 참여 인원 외 출입 인원 통제, 상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통한 개인위생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한 리그 운영을 위해 전력률 기울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어머니 반찬 도시락

출장뷔페 - 결혼피로연, 돌잔치, 체육대회, 집들이, 아유회 각종행사
- 소규모행사 밥차 운행

도시락 주문받습니다. 정식도시락A 6,000원 | 정식도시락B 7,000원 | 한정도시락 10,000원 | 일식도시락 10,000원 | 특정도시락 15,000원 | **단체 도시락 (1인 5,000원 ~ 20,000원)**

월 계약 반찬 납품

- 매일매일 만드는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

A 타입 : 국, 메인반찬 2종, 밑반찬 5종 ① 5,000원 2인 이상 제주도 전역 납품가능

B 타입 : 국, 메인반찬 1종, 밑반찬 4종 ② 4,000원

제사, 명절음식 차례상, 고사상

저희 조상님 모시듯이 정성을 다하여 만들겠습니다.

반찬 종합 쇼핑물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원하시는 반찬을 골라 주문하세요

어머니반찬도시락 <http://www.foodmom.co.kr> | 1566-9138 제주시 동탄두길 42-1 (응암1동 386번지)

daedong
대동공업

감 굴 운반차 및 전동가위

다목적

58주년(반세기) 전통 향토의 기업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농기구 공급과 신속한 A/S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엔진형 키시동운반차, 밧데리 전기운반차, 리모콘 전기운반차 선택하십시오! **좋은품질! 철저하고 신속한 A/S! 한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중음품질! 철저하고 신속한 A/S! 한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농용운반차

무한궤도타입 / 등판능력 : 30 / 전진3단, 후진2단

- HCC-500(수동형) · HCC-500N(유압덤프형)
- 궤도폭이 620mm로써 좁은길 과수원길의 운반작업 탁월
- 넘버노스 누구나 손쉽게 조작하고 운전 할 수 있는 기능

농용운반차

HC-300C

- 낮은 저장고 · 콘테이너 4개
- 전진3단, 후진2단

전기운반차-궤도

SB-3600ADL

- 덩크, 리프트 겸용
- 무선리모콘(주행, 상승, 하강)

전기운반차-바퀴

DK-MD7000

- 핸들조향방식 · 경사지 일정속도 유지기능
- 유압식덤프, 리프트 겸용

농용 전기운반차

파밍보이 2.0A

- 여성친화형 다목적 전기운반차
- 가동용 220V로 충전
- 알루미늄 적재함으로 내구성 증대

후대용 전동가위

스위스제품 FELCO 802, 812, 822

58주년 전통 향토의 기업
대동공업제주총대리점

대동기계 TEL 722-2378, 752-6620 H-P. 010-2698-6620

(제주시 광양로터리 구.농협맞은편) ※ A/S공장 : 봉개동 남성기계 721-1472

서귀포 영업소 서귀포시 토평동 비석거리 동쪽 300미터 한라산 방향

TEL 762-6620, H-P. 010-2699-6620

트랙터, 콤파인(보리,콩), 축산작업기, 농용굴삭기, 관리기, 감굴운반차, 전기운반차, 전기건조기, 자동호스릴, 파종기, 선별기, 치질, 원판쟁기, 퇴비살포기, 스킵로더, 기타농기계